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3월 14일(금)  
...(음력 2월 15일)...  
Пятница  
14 марта 2025 г.  
№ 10 (1212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러시아에서 3월의 3번째 일요일은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공사사업 분야 근로자들의 날로 기념한다. 올해 이 직업인의 명절은 3월 16일이다. 김춘선 씨는 '사할린'쇼핑센터 내 시계 수리 작업장에 자리잡고 시계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서비스 분야에서 약 50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시계 수리에 대한 지식을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한다. 지금은 아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일하고 있다. 김춘선 시계 수리공을 찾는 고객들은 매우 만족을 표한다. 빠르고, 깔끔하게 수리해주고 보장도 해주기 때문이다.

(이예식 기자의 글과 사진)

## 하포츠킨 상원의원과 주지사와 회동, 교통 및 전력문제 논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의 러시아 연방 상원의원인 안드레이 하포츠킨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해상운송에 대한 법안 개정 등을 비롯해 사할린 지역 발전소의 현대화, 사할린의 참전자들과 그 가족 지원이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안드레이 하포츠킨은 연방평의회에서 2년 반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정책위원회에서 보냈고, 현재 경제정책위원회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연방차원에서 주지사와 지역 정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사회 활동가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일들에 있다.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 중에 해상운송에 대한 연방법 개정안 도입이 있다. 사할린주로서 이는 지역예산의 자금 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사할린 - 본토를 횡단하는 '알렉산드르 제예브' 화물선박회사는 사할린 지역예산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개정안 채택으로 이러한 비용은 연방예산에서 조달될 전망이다.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원은 "지역 교통부가 운송에 대한 부담을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개정안은 이미 준비되었고, 계획 추진은 국가두마의 지지를 얻었다. 다음 단계로 해상으로 나가거나,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러시아의 모든 지역들을 포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할린주로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발전소의 현대화로 그 해결책을 위해 연방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에 활발한 주택건설과 지역 산업개발을 감안해 중단없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새로운 소비자

의 연결 전방을 확보하려면 낡은 전력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절실하다.

2019년부터 사할린주에서는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에서 35kV-220kV의 송전선 115km 이상이 건설 및 재건되었고, 유사한 용량의 변전소 6개가 건설되었다. 또한 쿠릴열도의 전력공급시스템을 현대화 하는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이를 통해 사할린 지역의 전력량은 두 배로 증가될 전망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금은 사할린주의 주민들과 만나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대해 얘기 나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주민의 요청은 모든 단계의 정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방향이다. 덕분에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의 요청이 연방의회에 전달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지사와 상원의원과의 만남에서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자들과 그 가족지원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사할린에서는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사할린의 참전자들에게 차량, 장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등 유용한 화물들이 배송되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영웅을 기다리는 참전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주택, 취업, 의료서비스, 기타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사회적 조정자가 배정돼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시작된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 지역 인재프로그램은 귀국한 참전병들에게 있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교육을 받고, 취업하며, 평화로운 일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단신

### 2024년 주 예산집행에 대한 법안, 공청회에서 발표

2024년 한 해 주 예산집행에 대한 법안 기획 공청회가 결석회의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안 검토, 의견 제시, 요청, 전자상 또는 서면상 질문을 제출로 이뤄진다.

공청회는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9시부터 3월 17일(월) 13시까지 사할린 주지사 및 사할린주 정부 온라인 접수처('전달 내용' 항목에서 '공청회 참여'를 표시해야 한다.)를 이용하거나 특별히 주소(유즈노 사할린스크 콤문니스티체스키 거리, 39B, 101호 사무실 동쪽 문)를 따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https://openbudget.sakhminfin.ru/Menu/Page/640> 링크를 접속해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 주 예산집행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 특수군사작전 참전자 모두, 전투 참전용사의 지위 획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한 참전자들에게 전투활동 참전용사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명령했다. 3월 6일에 조성된 '조국의 수호자들'재단의 수혜자와 직원들과의 만남이 이뤄진 가운데 이러한 명령이 크렘린 공식사이트에 발표되었다.

특수군사작전의 모든 참전자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3월 30일까지 법률 개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명령 이행에 러시아 연방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결과 다른 일련의 지시도 내려졌다.

특히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 중 전사한 참전자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지급금의 보호체계를 입법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 러시아에서 사회연금, 4월 1일부터 14.75% 비율 조정

2025년 4월 1일부터 사회연금의 연금수급자의 최저생활비 증가와 관련해 14.47% 비율 조정해 인상된다. 해당 조치에 러시아 연방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승인했다.

사회보험은 근무 경험이 없거나 연금보험을 받기 위한 근무기간을 못 채우고 일을 그만둔 러시아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유형의 연금 지급은 장애인과 부양인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또한 레닌그라드 봉쇄시기의 주민들, 대조국전쟁의 참전자들, 우주 및 항공 비행사, 인공적 재해와 방사능 피폭, 기타 다른 영역의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2025년 연방예산에서 연금 인상에 850억 루블리가 배정되어 비율 조종된 지급액을 받는 국민은 420만 명이다.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3월16일은 소비자 서비스 분야 및 주택공공사업 분야 근로자들의 날

# 김 나제즈다 헤어디자이너: "직업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머리스타일에 신경을 쓰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여인이라면 '세바스티안 스튜디오' 미용실, 그리고 그 주인 김 나제즈다 로마놉나(1971년생)를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가보지 않아도 1등 프리미엄 클래스 미용실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소비자 서비스분야 및 주택공공사업 분야 근로자들의 날을 앞두고 필자가 김 나제즈다 마스터와 약속을 잡고 '세바스티안 스튜디오' 미용실을 찾았다.

미용실 작업복을 입은 나제즈다는 매우 친절했다. 서비스 분야에서 약 30년간 일하다 보니 이런 면이 몸에 밴 것 같다.

2004년 '세바스티안 스튜디오'를 연 후로 이미 21년째 운영중이다. 그동안 미용사로서 크게 성장해왔다. 러시아미용사연합회 회원인 그는 2019년에 미용 전문가 자격증을 따낸 사할린의 유일한 전문 미용사다. 미용사의 고급 5급 다음 헤어스타일리스트(모델리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엔 미용 전문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시험도 봐야 하는데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이 자격을 가진 미용사는 러시아 전체에서 69명이었다. 지금까지도 이 명단은 변경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자격시험을 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를 얻기 위해 그동안 그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상상할 수 있다.

나제즈다는 사할린 동포 출신이 아니다. 3세 고려인으로 체츠나에서 셋째 딸로 태어나, 이 곳에서 5학년까지 다니다가 부모님을 따라 카바르지노-발카리아자치공화국으로 이사를 갔다. 1991년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식물고분자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사할린동포 3세와 결혼해 사할린으로 왔다. 당시 그는 대학 3학년생이었는데 임신도 하고, 공부하던 전공이 앞으로 전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포기하기로 했다.

아들이 태어나고 1994-1995년에는 미용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대학을 포기하면서부터 계획하던 일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미용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가위를 손에 쥐게 된 날로부터 나제즈다는 이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골 고객도 차차 생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고 있다. 당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잘 알려진 '위스토크', '돔 비타' 미용실들에서 일했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나중에 또래 동료친구들과 셋이서 한 공간을 임대해 '웨네라' 미용실을 열었다. 몇 년 같이 일하다가 다들 성장하고 돈도 좀 벌었기에 각자 자기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들 중 현재 나제즈다의 '세바스티안 스튜디오' 미용실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2022년에 그는 또 하나의 미용실을 열었는데 '스테파니아' 미용실은 마라 거리에 있는 '그린팔라스' 쇼핑센터에 위치한다. 미용실들의 이름에도 스토리가 있다.

'세바스티안 스튜디오'는 당시 유명 미국 브랜드를 사할린에 들여왔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의 첫 손자도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아들 며느리가 서로 다른 이름을 희망해 갈등이 생기자 나제즈다의 전 남편이 손주 이름을 '세바스티안으로 하자' 했더니 다들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지금 그 손주는 11 살이 되었다. 2019년에 태어난 손녀는 현재 5살이다. 그때는 며느리와 생각이 맞아 '스테파



니야란 이름으로 지었는데, 두 번째 미용실 오픈을 준비하면서 두말 없이 가게 이름을 '스테파니아'로 정했다고 한다.

현재 그 두 미용실에는 헤어스타일리스트 4명, 미용사(피부 관리) 2명, 미용사(에스테틱, 화장) 1명, 매니큐어/페디큐어 마스터 1명, 회계원이 정식으로 일하고 있다. 세금도 잘 내고 동료들이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최근 5년동안 러시아 전체에서 미용실 고객이 줄어든 추세인데 나제즈다가 운영하는 미용실도 예외가 아니다.

"저는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 좀 한가합니다. 고객이 거의 두배 줄었어요. 전에는 새벽 5시까지 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고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우리 같은 프리미엄 샵에

서 서비스를 받는 게 가격상승 때문에 좀 어려워졌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석 달에 한번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통계를 아세요? 주민 20만명도 안 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미용실이 894 개입니다. 원래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려면 1000인당에 미용실 하나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제즈다가 계속 이야기를 했다. 2012년에 모스크바 플레하노브 러시아경제대학교 졸업장을 받은 그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인사 및 조직 관리' 전공을 한 그에게는 이름난 러시아 경제교수들에게서 수업을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고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첫 대학에서 엔지니어 지식을 쌓은 그는 교육과 경험에 대한 의욕이 정말 많았다. 마찬가지로 그는 창의적인 헤어패션디자이너로서의 욕심도 많다.

그는 "직업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한다. 뭔가를 계속 배워보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외 연수도 엄청 많이 갔다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1년에 두세 번 해외연수를 다녀왔지요. 교육도 받고 관광도 하고 휴가를 겸했어요. 정말 안 간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의 영국,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등. 한국 서울 강남에서 연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한민족의 피가 땀졌나 봐요. 이번에도 초청을 받았어요. 가봐야죠. 한국말은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하지는 못해요"라고 나제즈다가 말했다.

하루를 다채로운 색으로 보내는 나제즈다는 '한 번 고객은 항상 고객'이란 생각만큼이나 단골고객도 꽤

있다. "29년이 된 고객도 있고 20, 15년이 된 단골 고객이 있죠. 이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나제즈다는 9년동안 미용실이 '크라이 스웨타(세상의 끝)' 사할린국제영화제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영화제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을 꾸준히 협력하는 게 미용실의 높은 수준을 증명해낼 것이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세바스티안 스튜디오'는 여러 경연에서 참가해 우승도 여러 번 했다.

또한 이 미용실은 한때 '사할린' 축구전문클럽의 스폰서로서, 자원 봉사자 축구선수들에게 무료 이발을 해주기도 했다. 그외 여러 자원행사에 참가하는 등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해왔다.

진실과 솔직함을 좋아하는 나제즈다는 살면서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한 적이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좋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외할머니의 성격을 닮았는데, 1913년생인 외할머니는 만주에서 지내다가 15살에 캄차트카에 오게 되었고 너무 많은 것을 겪은 분이였다. 나제즈다는 할머니 이야기를 동화처럼 듣고 자랐고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나제즈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그의 따뜻함을 느꼈고 때로는 그의 솔직함에 놀라기도 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 넘치는 인간미는 그의 미용실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아름다움을 나눠주는 곳임을 증명해주었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제26회 스키마라톤 대회에 2000명 이상 참가

3월 8일(토) -9일(일) 사할린에서 제26회 이고리 파블로위츠 파르후트지노브 기념 스키마라톤 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세계 여성의 날에 첫 스키마라톤 경기가 진행되어 러시아 전역에서 999명의 스키어들이 출전했다. 스키마라톤의 출발점은 코르사코브 지역 레스노예 마을에서 시작되 참가자들은 자유형으로 30km와 50 km코스에서 경주했다.

둘째 날에는 눈과 함께 포근한 날씨를 만난 가운데 이날 103개의 도시와 40개 행정자치지역들에서 온 총 274명의 참가자들이 레스노예 마을 출발점에서 고전적 유형으로 30km와 50km 코스에 출전했다. 결승점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동계스포츠 종목 학교(웬스카야 5번지)였다. 이날 동계스포츠 종목 스포츠학교에서도 아동들을 위한 5km 코스의 스키 경주가 진행되어 출전자들 중 가장 어린 선수는 3세의 유아였다. 이 행사는 '체육 및 스포츠 발전'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경기의 우승자들 시상식에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사할린 스키마라톤 대회에 러시아 연방 56개 행정자치지역과 219개의 도시들에서 선수들이 출전하여 제26회 사할린 스키마라톤대회는 러시아 전 지역의 참가자들에게 매력

있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계스포츠 종목의 애호가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경기 참가자들은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주최 측은 경기를 위해 최상의 여건을 조성했다. 이 행사는 신세대에게 스포츠의 활기찬 성과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주며, 선수들 간에 우정과 협동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 В XXVI Сахалинском лыжном марафон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2000 лыжников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8-9 ма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ил XXVI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И.П. Фархутдинова.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в первый день марафона, на трассу вышли 999 спортсмен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Старт марафона был дан в селе Лесн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Участники пробежали 30 и 50 километров свободным стилем.

Второй день сахалинского марафона встретил спортсменов снегом и комфортной температурой. Со старта в поселке Лесное на дистанцию 30 и 50 км ушли те, кто выбрал классический стиль. Всего 274 человека из 40 субъектов и 103 городов.

Марафонцы финиширо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школ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енская 5).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также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детские забеги и старт на 5 километров. Соревновались и самые маленькие лыжники, которым исполнилось 3 год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лось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награждении победителей первого соревнователь-

ного дня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м лыжном марафон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портсмены из 56 субъектов РФ и 219 городов. XXVI Сахалинс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стал не только масштабным спортивным событием, привлечшим участников со все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но и на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ом для любителей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Участни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а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еспечили отлич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соревнований.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укрепляет дружбу и единство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вдохновляя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на активные достижения в спорте.

### 사할린 통계국, 현대 사할린 여성의 현황 발표

사할린주 통계국이 사할린주의 현대적 여성에 대한 통계적 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사할린 지역에는 사할린 전체 인구의 53%인 사할린 여성 24만1,200명이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할린 여성들(83%)은 도시에 살고 있고, 농촌 지역에는 단지 17%가 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 1,000명당 여성은 1,115명(도시에서는 여성이 1,122명이고, 농촌에서는 1,081명)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35세 - 39세 연령의 여성들은 남성(남성 천 명당 983명)보다 적은 반면 만 70세 이상의 여성들은 남성(남성 천 명당 1973명)보다 약 2 배 정도가 많다.

(8면에 계속)

## 특수군사작전 참전병1,200명 이상 주 재활센터에서 회복치료

사할린주 재활센터에서 진행되는 회복 및 재활치료는 참전자들의 건강 회복과 신체기관의 기능이 돌아오도록 돕고 있다. 많은 경우 장병들은 다 시 전선으로 복귀하고, 일부 장병들은 건강상태로 인해 손에 무기를 드는 복무를 못하게 되었다. 향후 계획과 관계없이 의료전문가팀이 모든 부상을 당한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건강회복을 위한 모든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부상병들 대부분은 외상과 전투병들이 당하는 질병인 근골격계와 관련이 있다. 즉 파편 부상, 척추외상, 찰과상, 관절손상, 다발성신경병증을 당한 후의 후유증이다. 여러 분야의 의료진들이 모든 부상병들의 손상된 장기나 근골격계의 기능 회복을 위해 애쓰며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주 재활센터의 이베타 자벨리나 수석 의사는 "과중하게 짐을 지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데서 이전에 수술한 인공고관절이 부서지는 사

가 발생하거나,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척추퇴행성 질환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투 여건에서 짐을 지는 일이 과도하여 때론 부상으로 상태의 악화가 이어진다. 각 부상병들에게 개별적 맞춤치료가 필요하다. 우리는 군 병원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각각의 주요 사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군사작전 초기부터 주 재활센터는 부상병들의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회복을 위해 일해왔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참전장병들을 위한 재활치료 진행 절차가 간소화된 가운데 지난해 이 시설에는 상당한 양의 각종 재활장비들이 충분히 갖추어졌고, 재활을 위한 새로운 기회도 생겨 향후 이 방안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의료전문가들은 건강회복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장비들을 모으고 있다.

## <행복한 모성>운동, 사할린주에서 공식적으로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3월 7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추진하는 <행복한 모성> 활동의 창설 콘퍼런스가 조성되었다. 그 일환으로 행복한 모성의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여 출산 장려와 자녀를 둔 가정지원에 따른 기획추진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 속에 산모를 위한 사회진출 계획, 보모연구소, 양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 임신부들을 위한 할인 및 특권, 출산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

콘퍼런스에는 사할린주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임신부, 보모, 노인자원봉사자, 사회 분야 기관의 직원, 사업 및 정부기관의 대표자들 450명이 이상이 참석했다.

주지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여성들에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행복한 모성>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새로운 활동이 목적하는 바는 첫째 생활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해 치명적 결정을 피하고,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돕는 데 있다. 둘째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나 아이를 갖길 원하는 가정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임신 계획에서부터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의료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임신부와 남편을 위해 정기적으로 생

식기관을 검진해준다. 사할린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험관인공수정 시술이 운영돼 300이 넘는 가정에 부모가 되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어머니가 되는 길에 선 여성에게는 행복의 안내자가 동반한다. 건강 안내자와 개별적 도우미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여성들을 위해 모든 건강상 문제 발생 시 믿음직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행복한 어머니는 누구인가? 바로 자녀를 키우며, 직업에서 성공한 여성이다. 그들은 사회생활에서, 문화, 스포츠, 다른 많은 분야에서 자신을 성취하며 사는 여성이다. 지금은 모든 여성이 이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자질과 사회진출의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어떤 여성들은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누군가는 자신에게 주어질 권리와 지원조치를 몰라서 출산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한 어머니의 길은 다양한 경제부문의 전문가들이 받고 있는 사회진출의 계획처럼 구축될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사회적 경력 향상, 재교육 및 추가교육의 기회, 원격근무 활용, 필요한 경우 주거여건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주지사는 "여성들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직장

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자격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모든 기업들과 기관들에서는 직원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어머니가 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모 연구소가 설립되어 전문적인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언어적, 수학적 측면에 남다른 보모를 양성할 계획이다.

'보모 협력업체'의 대표인 빅토리아 키리나는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수 보모' 전국 2차 전문가인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 팀은 아이를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잘 아는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그들의 눈빛은 빛나고, 우리는 우리의 직원을 늘릴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 노인자원봉사자들은 아이를 낳은 사할린의 가정을 찾아가 도우며, 자신의 손주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포들의 손주들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

'행복한 모성'활동의 일환으로 임신부들에게 특권을 제공해 플라스틱 카드를 지급하여 '사할린 여성 카드'와 유사하게 무료 피트니스를 이용하고, 문화기관 스포츠시설 무료 이용, 제품 및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주택건설단지의 플랫폼을 시험 운영하고, 도로표면 점검에 따른 종합 신경망을 가동시키며, 주민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우미를 훈련시키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망을 이용하면서 인공지능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위반 적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기질의 모니터링, 승객의 흐름, 초음파 결과 판독, 토지등록평가 등에서 일련의 기획 추진이 유망하게 개발되고 있다.

### 허진원의

### <사랑하기 좋은 날>

## 돌덩이 / 광진

뜨겁게 지저뵈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 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뉘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되고 썩어 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

나는 다이아

"넷플릭스 시

대를 맞아 역주행

에도 성공했다지

요.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멋지게

소개됐던 시인

니다. 웹툰 원작인

데 놀랄게도 이 시

는 따로 시인이 있

는 게 아니라 원작자가 직접

스토리 속에 집

필해서 넣었다네요. 이

양반 뭐야? 그러니까

스토리도 잘 짜면서 그림도

잘 그려, 웹툰이니

컴퓨터로 구성되며 색채

이런 것도 잘한다는

얘기네요. 다재다능하신

분! 무엇보다도 힘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시라

그런지 울림이 있네요. '아,

그럼 이제 나도 슬슬 시

를 써 봐야 하는 건가. 남

자 시인에게서 여성팬층이

두터운다는 소리를 들었

다는 것도 같은데, 하하

하."

시는 참 어려워요. 어렵

게 생각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시도 그냥

일반 시집으로 출판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막해 지지요. 문단의 평

론가들이 콧방귀나 끼었

을까요? 메타포의 형태가

어떻고, 시는 어떻게

저저고, 이래야 하는데

이래서 문제, 아님

저래서 문제 이랬겠지요.

무관심했으려나?

저는 뒤늦게 이 드라마

를 본 셈인데, 극중 이

시를 전화기에 대고

읽어주는 대목에서 '참,

좋은 시도 다 있구나'

이랬거든요. 직설적이고

무엇보다 빙빙 돌아가

며 요즘을 에두르려는

시단의 어떤 분위기

에서 벗어난 느낌이라

참신했습니다. 방송을

탤으니 시청자들에게는

이제 타깃이 된 시였

기에, 유명세도 치렀지

요. 미디어의 영향이 커

진 건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나 이

렇듯 자연스럽게 우리

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시 역시 소중한 요즘

입니다.

서울은 이미 코트

며 오리털 파카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쌀

쌀한 느낌은 있지만

봄은 봄입니다. 오

바람중에 저는 두꺼

운 점퍼에 반바지를

입고 아직도 바나나

우유를 사 먹으러

편의점을 찾습니다.

집은 덥고, 그 잠

시를 틈타 모두가

잠든 여의도의 빌딩

숲을 거닐 때면

저는 좋더라고요.

시의 힘을 믿는

시인처럼 그 순간

만큼은 어떤 자유

로운 나그네이지

싶은 거지요. 시

를 쓸 수 있는 그

틈. 그 문틈이

조금이라도 열

린다면 한 번

써볼 마음입니다.

시나리오 일

들어왔는데, 푸

쉬킨이 읽고

싶어지다니,

이거이거이거

일 하나 또

읽어버리는 건

아닌가, 조심

스럽고 또 조심

스러운 밤입

니다. 자기

자신을 다이

아몬드처럼

사랑하다

보면 언젠

가 세상과

맞서 이기는

날이 오겠

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

니다. 여

러분도

다이아

몬드처럼

아주 단

단한

봄

맞으

시길

바

랍

니다."



## <기술의 사할린> 기획실행 사례 발표

국가행정 디지털화에 따른 30개의 기획들이 2024년 사할린주에 도입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지역 행정>연방 포럼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이에 러시아 각 지역에서 연방 및 지역 정부기관, 기업, 학술단체의 대표들 250명 정도가 참석했다.

포럼 세션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사할린주의 사례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역

들의 기술적 전환>이 발표되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사할린주에서 인공지능 성장에 따라 1위를 차지한 부서는 여러 디지털 기획들을 성공적으로 즉시 시행하고 있는 보건부이다.

디지털 해결책은 가장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점차 도입돼 활용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주택건설단지의 플랫폼을 시험 운영하고, 도로표면 점검에 따른 종합 신경망을 가동시키며, 주민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우미를 훈련시키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망을 이용하면서 인공지능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위반 적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기질의 모니터링, 승객의 흐름, 초음파 결과 판독, 토지등록평가 등에서 일련의 기획 추진이 유망하게 개발되고 있다.

## 사할린주, 러시아의 가장 낮은 여성 실업률 순위에서 20위

사할린주가 러시아의 낮은 여성 실업률 순위에서 20위를 차지했고, 극동연방관구 지표상으로 사할린주는 3위를 차지했다. 2024년 1/4분기에 사할린의 여성 실업률은 1.7%였고, 국가 평균은 2.7%였다고 러시아 국영통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할린주에서 여성 실업률은 1년 만에 3.8%에서 1.7%로 감소했다. 이는 러시아 평균수치인 2.7%보다 낮은 수치다. 2024년 3/4분기 자료에 따르면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은 평균 3.8개월간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고, 러시아 국민은 평균적으로 5개월에 걸쳐 채용 플랫폼을 찾아 면접까지 5개월이 걸렸다.

여성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모스크바로 여성실업률은 0.9%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3.9개월이었다. 전 러시아에서 2위이고 극동연방관구에서는 1위인 아무르주는 여성실업률이 1.0%이고, 구직 기간은 2.7개월이 걸렸다. 3위는 한티-만시 자치구로 여성 실업률은 1.1%, 구직 기간은 2.7개월이 걸렸다. 반면 인구세티야 러시아 지역에서 여성 실업률은 25.5%이며, 다게스탄은 11.1%에 달했다.

## 사할린 경찰, 마약조직과 마리화나 17kg 공급자 체포

사할린 경찰이 마약 불법밀매자 2명, 공급자와 2명의 구매자를 체포했다. 경찰 수사대는 모든 마약 관련자들을 수색하면서 17kg 이상의 마리화나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65세 남성이 56세의 지인에게 마리화나 몇 개의 대량 묶음을 주면서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인은 가격을 부풀려 받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2월에 마약 소매상이 58세의 사할린 남성에게 120g의 마약봉지를 몇 개 팔아 이후 구매자가 경찰에 잡혔다. 같은 날 65세의 마약 도매상에게서 270g 이상의 대마초 7 팩을 구매한 혐의로 46세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이 체포되

었다. 마약거래상들의 주거지와 직장을 수색하면서 총 12.5kg이 넘는 마리화나가 발견되었다.

수사대는 마약 공급자인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크라스노폴리에 마을에 사는 64세 주민을 즉시 구속했다는데 그의 집에서 4.7kg 이상의 마리화나가 발견돼 압수한 가운데 피의자는 숲에서 대마를 재배했음을 시인했다.

경찰 수사대는 러시아 연방 형법 228조 1항 4호(조직적 집단에 의한 불법 마약생산 및 불법판매)와 러시아 연방 형법 228조 2호(대량으로 마약 조제,보관,취득, 불법판매)에 따라 마약 공급자, 불법판매자 구매자를 형사사건으로 기소했다.

(서울에서 허진원)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нкурс эссе к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 Мамино кимчи самое вкусное на свете!

Бя Ирина(Хабаровск), 2 место

Я родилась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1967 году. В детстве мы жили большой семьей: с бабушкой и бабушкой, папой и мамой, и нас, детей, было четверо.

Как и каждая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все члены нашей семьи готовили зимнее кимчи осенью каждый год. Дома стоял ядреный запах чеснока и перца, мы чистили столько чеснока, что пальцы опухали. Несмотря на тяжёлую работу, было радостно делать зимнее кимчи вместе со всеми домохозяйками.

Всю зиму мы ели вкусные блюда из кимчи. Особенно нам нравилось жаренное кимчи с горячим белым рисом, а на Новый год мы вдвоём ели вкуснейшие корейские пельмени.

Но для меня самые памят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 том, как зимой, каждые выходные, мы с мамой ходили за нашим кимчи в тётушкин дом.

Только мы вдвоём – мама и я.

Мы долго шли по дороге и разговаривали, или просто шли молча. И на душе было хорошо, потому что нас было только двое – мама и я. Это редкие моменты, когда мы с мамой были наедине вместе.

Когда мы доставали кимчи из бочки, мама брала капусту голыми руками, рвала лист капусты на длинные кусочки и клала кусочек мне в рот.

Кимчи было очень холодным, на нём был лёд.

Когда мама угощала меня, я чувствовала её любовь в каждом кусочке кимчи...

В холодный зимний день это кимчи согрело мне душу и сердце.

До сих пор, для меня, мамино кимчи самое вкусное на свете!

От редакции: «Мамино кимчи самое вкусное на свете»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о оценил известный поэт и писатель Роман Хе.

«Больше всех понравилось "Мамино кимчи самой вкусное на свете..." читаешь на одном дыхании - как хайку, или пятистишие Такубоку!»

Ирина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хотела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работ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днако ей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не хватило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о ее работу отметила драматург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Мин Джон. Вот ее реценз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우리 엄마의 김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배순미)

이 글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말하려면 장독대에서 막 꺼낸 김치 한 포기일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기억을 꺼내려면 엄마와 함께 김장을 한 날일 것 같다. 엄마와 딸의 아름다운 추억이 한 편의 짧은 글에 잘 담겨 있다. 읽다보면 군침이 돌고 알싸한 냄새가 풍기고, 엄마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우리 모두는 엄마로부터 왔음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글이다."

## В ККЦ прошли съемки «Повара на Колесах»

5 мар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и захватывающие съемки тревел-реалити «Повара на Колесах»,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 рамках кулинарного тревел-реалити «Повара на колёсах» звёздные шефы из Москвы отправляются в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оссии.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шефы знакомятся с местной историей и кухней.

Съемка началась в 19:00 и продолжалась до 23:00. Гостей встретил ансамбль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который не только порадовал зрителей, но и предложил попробовать сыграть шеф-поварам на барабанах.

После этого участник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тре-

нировку СК «Торнадо», где президент клуба Ри Павел и тренер Егай Дмитрий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секретами и приемами.

Завершилась вечерняя программа знакомством с гастроном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сти готовили два блюда (кимчи и мэунта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ых поваров. Результат превзошел все ожидания: суп получился прос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м.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тревел-реалити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закуск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ыраз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й своей команде, которая отработала на отлично.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ансамблю «Ханьль», Пак Ген Чун, Лим Э.А., спортсменам и тренерам СК «Торнадо».», -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 Виталий Кан - самы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кореец СССР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ССР единственным корё-сарам, достигшим ранга заместителя союзного министра, был Виталий Яковлевич Кан.

Назначенный на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лесной, целлюлозно-бумажной и дерево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ССР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от 27 января 1966 года № 63 он проработал на своем посту до 1974 года.

Виталий Яковлевич Кан родился 27 марта 1919 года в селе Славянка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чал в 1937 году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и культработником в приморском радиокомитете. В 1938 году поступил в Саратовский автодорожный институт, который окончил в 1943 году. С этого же времени стал работать прорабом на Запад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в Подмоскowie.

В 1945 году переведён на должность старшего прораб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 2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шоссейных дорог НКВД СССР в Харькове.

С 1948 года работал главным инженером, а затем начальником Калачевского строитель-

ного района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вовал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олго-Донского канала.

В 1953 году назначен начальником Жигулёвского строительного района по сооружению Куйбышевской ГЭС.

В июне 1959 года возглавил Куйбышевгидрострой (одну из крупнейших советских строи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октябре 1961 года Виталий Кан был избран делегатом XXII Съезда КПСС.

В 1963 году назначен на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лесной, целлюлозно-бумажной, дерево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лесному хозяйству СССР.

В 1966 году с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лесной, целлюлозно-бумажной и дерево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ССР.

Награждён двумя орденами Ленина (19.09.1952, 07.08.1958), медалями.

Ушел из жизни 13 января 1980 года.

<https://t.me/saramkor>



## Замглавы МИД России встретился с послом РК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Рябков встретился 11 марта с послом РК Ли До Хуном.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сообщении, размещённом на сайте росси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ись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вестки дня, включая отдельные аспекты проблематики контроля над вооружениями 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Сергей Рябков курирует в российском МИД вопросы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Америк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над вооружениями. В этой связи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затрагивались также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итуация с переговорами по Украин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южн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х



Photo : YONHAP News

отношений. Для их поддержания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Ли До Хун постоянно общается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Так,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встречался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главы МИД России п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региону Андреем Руденко.

(KBS World)

## Тёплый как печка, негнибаемый как железо Пётр Семёнович Цой (Чхве Чжэхён)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героя-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кавалера Ордена Независимости — Цоя Петра Семёновича (Чхве Чжэхёна; 1858-1920) — прекрасно иллюстрирует нелёгкую судьбу корё-сарам, покинувших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бретших новый дом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и бесстрашно выступивших против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отстаивая честь и свободу Кореи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Родившийся 15 августа 1858 года в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 маленький Чхве Чжэхён вместе со всей семьёй, как и многие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был вынужден перебраться в 1869 году на росси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спасаясь от разразившегося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ореи голода, вызванного природ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и неумелым управлением алчных чиновников.

Однако и на новом месте его семья жила настолько бедно, что будущий борец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был вынужден пойти юнгой на российское судно. Там опеку над ним взяли сам капитан и его супруга, обучившие его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и крестившие по православному обряду. Так он получил русское имя Пётр Семёнович, с которым прожил всю жизнь и принял мученическую смерть от рук японской военщины.

Благодаря своему ясному уму и недюжинным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м способностям Пётр Цой стал не только преуспевающим купцом, но и первым корейским волостным старшиной, активно отстаивающим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многочисл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Однако н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ими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ми талантами Пётр Семёнович вписал свое имя в историю. Потомки всегда будут помнить его благодаря значительному вкладу в борьбу с японскими империалистами, посмевшими покуситься н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Являясь одним из богатейших люд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ех времен, он отдал всёжитое им немалое состояние на создание и организацию антияпонской борьбы. Во многом именно на его деньги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вооружённые отряды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зан «Ыйбён».

Пётр Семёнович стоял у истоков создания Общества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и Общества поощрения труда,



03 MARCH 2025

Календар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2025 год

был почётн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льног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и крёстным отцом приморских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таких как Ан Чжунгын.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неоднократно требовали его выдачи от цар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днако только когд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олностью погрузился в хаос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интервенции Японии в Приморье, Пётр Семёнович Цой был арестован японцами, подвергнут жестоким пыткам и расстрелян с несколькими другими корейскими революционерами в апреле 1920 года.

Корейцы-строители, одни из первых оценившие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высокие моральные качества молодого Петра Семёновича, ласково звали его Чепечка (от Чхве Петька), что созвучно тёплому слову «печка». Именно таким его и запомнили потомки — добрым и отзывчивым к чужому горю и негнибаемым борцом с несправдливостью и злом.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Цой В.В. Чхве Джэхён (Цой Пётр Семёнович). М.: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Крафт+, 2010. 352 с. Чхве Джэхён (Цой Пётр Семёнович) (1860-1920 г.г.). URL: <https://koryo-saram.site/chhve-dzhehyon-czoy-pyotr-semyonovich-1860-1920-g-g/>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3.03.2025). 최재형崔在亨. URL: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18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3.03.2025).

Дом-музей Петра Семёновича Цоя. Адрес: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г. Уссурийск, ул. Володарского, 38

Источник: <https://t.me/arkr2018/1089>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КНДР запустила серию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10 марта в 13:50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извела запуск сери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 направлении Жёлтого моря. По данным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ракеты запущены с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инций Хванхэдо, не представи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дробностей.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РК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и следят за действия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бмениваясь информацией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и япо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ракеты впервые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 Белый дом и в первый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учений Freedom Shield.

##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ВВС РК извинился за случайную бомбардировку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РК генерал Ли Ён Су принёс извинения за случайную бомбардировку деревни Ногок-ри города Пхочхон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6 марта два истребителя KF-16 нештатно сбросили восемь бомб МК-82 за пределами полигона во время учений с боевой стрельбой, ранив 31 человека, в том числе, 19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ВВС,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защищать жизни и имущество людей, нанесли вред людям», - сказал Ли Ён Су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добное никогда не должно было произойти и не должно повториться», - подчеркнул генерал. Он пообещал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одобных инцидентов в будущем, а также помочь пострадавшим верну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полностью компенсировав ущерб.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причиной случайной бомбардировки является ошибка пилота, который ввёл неверные координаты цели. Военные приостановили все учения с боевой стрельбой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не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а точная причина аварии.

## РК и США начали учения Freedom Shield

10 марта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РК и США начали ежегодные весенние учения Freedom Shield, которые продлятся до 20 марта. Они включают командно-штабные учения с компьютерным моделированием и полевые манёвры. Цель учений - отработка отражения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включая ядерное нападение, путё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ухопутных, морских, воздушных и косм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Как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вооружёнными силами двух стран, учения помогут союзникам укрепить совместную оборону. Со стороны РК в них задействованы около 19 тысяч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Запланированы 16 видов полевых манёвров,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программе прошлых лет учений их было 10. Между тем, учения с боевыми стрельбами отменены в связи с произошедшим ранее в этом месяце инцидентом со случайным бомбометанием в ходе уче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Два истребителя KF-16 нештатно сбросили восемь бомб за пределами полигона в городе Пхо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результате инцидента пострадали 15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и 14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 Фильм «Микки-17» лидирует в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ом прокате

Фильм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Микки-17» вышел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ом прокате. По данны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онлайн-трекера кассовых сборов Box Office Mojo, за выходные дни 8-9 марта сборы от демонстрации фильма в 3807 кинотеатрах составили 19 млн 100 тыс. долларов. Голливудская научно-фантастическая комедия собрал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34 млн 200 тыс. долларов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рокате. В результате кассовые сборы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демонстрации фильма составили в целом 53 млн 300 тыс. долларов. Самые высокие сборы достигнуты в РК - 9 млн долларов за первую неделю проката. Далее следуют Франция - 2 млн 900 тыс. долларов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 2 млн 700 тыс. долларов. Компания Warner Bros. Entertainment затратила на съёмки фильма 118 млн долларов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80 млн долларов составили маркетинговые расход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икки-17» окупился в прокате, ему необходимо собрать от 275 до 30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 США закроют 12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за рубежо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крытия некоторых зарубеж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США и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персонала остающихся после фактического роспуска Агентства СШ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развитию (USAID). Госдепартамент планирует к концу лета закрыть 12 генеральных консульств, в основном, в Западной Европе. Этот шаг предпринят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Китай превзошёл США по числу зарубежных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У США их 271, а у Китая 274. Госдепартамент планирует также существенное сокращение штатов. В феврале госсекретарь Марко Рубио поручил глава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миссий за рубежом поддерживать численность персонала в сво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на минимальном уровне. **RKI**

## КНДР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строящуюся атомную подлодку-ракетоносец

СМИ КНДР распространили сообщения о посещении лидером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ом военной верфи, на которой ведё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военных кораблей страны. Внимание зарубежных экспертов привлекло наличие среди строящихся кораблей атом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оснащённ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издания не привели никаких технических деталей по поводу нового подводного корабля, но сообщили, что строится "атомная подлодка с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управляемыми ракетами на борту" (фактическ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одводный атомный ракетоносец) и о процесс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дробно доложили" вождю Ким Чен Ыну. Ким же лично осмотрел военную верфь.

Кроме того, в СМИ бы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фотографии с посещения Кимом цеха, где подлодка показана снизу и сбоку, но так, что сложно оценить ее точные параметры.

Издания Страны чучхе передали слова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где он заявил, что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укрепления мощи национальных ВМС выступает одновременное содействие модернизации надводных и подводных боевых кораблей флота КНДР, и максимальное расширение их операти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Отмечено, что Ким Чен Ын представил перспективный план обретения новых кораблей и поэтапные цели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дальнейшие направления и различные задачи по их исполнению (без раскрытия конкретики).

Эксперты Южной Кореи все же озвучили свои приблизительные оценки параметров атомной подлодки

КНДР. Согласно мнению Сеула, водоизмещение субмарины составляет 6000-7000 тонн. Вероятно, она сможет нести на борту порядка 10 пусковых установок ракет с ядерными боеголовками. Высказано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это буд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испытания которых КНДР уже ране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водила. Спуск на воду новой подлодки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через 1-2 года, после чего он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испытания.

Наибольшие споры и разногласия вызывает вопрос по поводу того, откуда у КНДР мог появиться компактный атомный реактор, который установлен на субмарине, и есть ли он вообще. Не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Южной Кореи полагают,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технологии и помощь Пхеньян мог получить от какой-то третьей страны, которая имеет собственные атомные подводные лодки (АПЛ). Другие же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ка блефует, и атомного реактора, подходящего по параметрам для АПЛ, у нее нет, но она ведет его разработку именно для данной субмарины.

Отмечено также, что сообщение о визите Ким Чен Ына и актив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 КНДР новых крупных боевых кораблей было сделано накануне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регулярных американ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Freedom Shield,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тартовать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Возможно,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казала, что готова достойно отреагировать на "бряцание оружием" со стороны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В Южной Корее готовятся к беспорядкам в день решения КС по импичменту Юн Сок Ё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явили, что мобилизуют все силы и средства, а также, скорее всего, введут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готовности в день, когда будет оглашено реш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по импичменту Юн Сок Ёля.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высока степень вероятност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ых попыток де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и устроить массовые беспорядки, учитывая, что любой вердикт не устроит какую-то из сторон расколовшегося общества.

"Мы мобилизуем все силы полиции,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вторения недавно случившихся инцидентов, а также предотвратить столкновения между сторонниками и противниками президента Юна", - заявил 4 марта в ходе общения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миссара Агент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ции РК Ли Хо Ён. Так он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ланы работы ведомства в день, когд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КС) обнародует вердикт по импичменту президенту Юн Сок Ёлю.

Напомним, что 14 декабря парламент РК объявил импичмент Юну за введени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ночь с 3 на 4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вязи с решением депутатов Юн временно отстранен от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нностей.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 вернуть Юн Сок Ёля на пос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окончательно сместить с поста, назначив досроч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 должен принять КС. Суд же недавно завершил слушания по делу и, как ожидается, вынесет решение до середины марта.

Хотя и.о. начальника полиции не стал вдаваться в подробности, но бы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под "инцидентами" он имеет в виду погром, который устроили сторонники президента Юна, когда суд Запад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санкционировал арест президента по обвинениям в мятеже и попытке захвата вла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Юна сейчас два судебных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а - по импичменту в КС и по мятежу в уголовном суде. Если в первом случае он просто потеряет свой пост, то во втором ему грозит вплоть до высшей меры наказания.

Хотя Коре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лавилась мирным характером даже массовых протестов, но все поменяла ситуация вокруг Ю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касается сторонников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Они ведут себя весьма

агрессивн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оппонентам,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воцировали стычки с полицией и муссируют беспочвенные слухи 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Китая" в ситуацию с импичментом Юна. Отметим, что версию о "возможной руке Пекина" косвенно поддержал и сам Юн, что заставило власти КНР отреагировать и призвать не провоцировать в Корею антикитай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находящийся под арестом экс-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Ким Ён Хён, которого наряду с Юном считают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инициаторов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на днях через своего адвоката призвал сторонников президента сплотиться и немедленно "наказать" некоторых судей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которые "руководят незаконным процессом по импичменту". Ким указал на судей, которые известны своими критическими взглядам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Юну и консервативному лагерю вообще.

На этом фоне в Сети и различных интернет-сообществах ультраконсерватив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стал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сообщения о реализации права 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в случае утверждения вотума недоверия Юну, вплоть до возникновения "резни".

Эксперты же опасаются, что день, когда КС обнародует свое решение, будет очень беспокойным для страны. Общество расколется на два лагеря, поляризация и антагонизм растут. При этом, судя по оценкам юристов и политолого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скорее всего поддержит импичмент, а это, как уже очевидно, сторонники Юн Сок Ёля не готовы принять, и часть из них вполне могут учинить беспорядки.

И.о. главы пол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Хо Ён в бесед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дал понять, что они прекрасно осведомлены о подобных угрозах и намерены как играть на опережение, так и решительно действовать в случае провокаций на мест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едомство "положительн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ведения в день обнародования реш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высшего уровня готовности для всех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иции. Это позволит вызвать на работу 100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Комитет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рекомендует повысить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Комитет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РК рекомендо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повысить установленный законом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с 60 до 65 лет.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0 марта,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вступает в стареющее общество, относительный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выше, чем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членах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Это повыш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х реформ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достойной жизни пожилого населения. Кроме того, существует

пятилетний разрыв между установленным законом пенсионным возрастом в 60 лет и возрастом в 65 лет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енсионных пособий. Э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потере доход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возможного снижения найма молодеж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выше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комитет рекомендует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недрить политику поддержк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для пожилых работников,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нагрузку как на предприятия, так и на сотрудников.

KBS World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Владимир Солодов обсудили ход работ по увековечению памяти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убернатор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Владимир Солодов в рамках исполнения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б увековечении памяти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1945 года провели совещание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Главы регионов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подготовки к открытию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Штурм острова Шумшу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тал последней крупной операцией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ход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оветские десантники атаковал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позиции противника, имеющего десятикратное численное превосходство, и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Японцы пытались скинуть десант в море с помощью танков, но не добились успеха. Подбитые боевые машины так и остались на поле боя. Сегодня они являются частью экспозици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ходе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осенью 2024 года поручил увековечить память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Работы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находя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Курильская десантная операция –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нашей истории. Мы должны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подвигах наших предков, чтобы привить по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патриотизм и чувств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трану. Поэтому м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над созданием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острове, а также над развитием туристско-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по его территори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18 августа, в день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на Шумшу состои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амятных событий.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лубы 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России». Пройдут такж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портивному триатлону «Высота 171». На протяжении летнего сезона для туристов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маршруты «Дорогами острова Шумшу».

Создание мемориала и проведение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 значимые события,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героическом подвиге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и станут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Мы сделаем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и обеспечить их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 добавил Владимир Солодов, губернатор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уделили теме доставки грузов на Шумшу.

Основной лагерь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положить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где отсутствуют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е сооружения. В апреле выполним первый пилотный рейс, чтобы установить фарватера и обследовать берег, – сообщил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5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ет ряд важных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вязанных с 80-летием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В планах, кром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и открыти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Шумшу, также две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 Холмском и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ах. В селе Рошино откроется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посвященн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 Вопросы транспорта и энергетики обсуд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встрече с сенатором Андреем Хапочкины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сенатор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ем Хапочкиным. Главными темами разговора стали изменения в законе о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ках, модернизация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поддержка сахалинских защитников и их семей.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отметил, что уже 2,5 года проработал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большую часть времени – в комитете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а теперь перешел в комитет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В фокусе внимания сегодня – продвижение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инициатив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Среди таких инициатив – внесение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ках.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экономию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ейчас организация перевозок паромом «Александр Деев» на переправе Сахалин – материк субсидируется из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С принятием поправок эти расходы должны будут финансироватьс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Вы,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вышли с так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что эту

нагрузку возьмет на себя бюджет страны. Первые поправки уже подготовлены, инициативу поддержали депутаты Госдумы.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планируется охватить вс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имеют выход к морю и для которых актуален этот вопрос, – сказал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Еще один важный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прос, для решения которого требуется федер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 это модернизация электросетей. Необходимо заменить изношенные объекты энергетики,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сперебойное энергоснабжение островов и перспективы подключения новых потребителей, учитывая активное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промышлен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С 2019 года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й работы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УРЭ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регионе построено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о более 115 км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напряжением 35-220 кВ, построено 6 трансформаторных подстанций аналогичной мощ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утверждена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Курил,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мощность энергетики на островах увеличится вдвое.

– Сейчас очень важно встретиться с ж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их волнует. Запросы людей – это главный ориентир в работе властей всех уровней. С вашей помощью об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олжны быть услышаны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встреч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и сенатор обсудили также вопросы поддержки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ей. С Сахалина в зону СВО регулярно совершаются отправки полезных грузов – островные бойцы обеспечены техникой, снаряжением и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За семьями защитников, которые ждут героев с победой, закреплены социальные координаторы, помогающие с жилье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медицинским обслуживанием и решением других вопросов. А для вернувшихся домой бойцов прекрас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новой реальности ста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кадровая программ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запущенна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ее рамках можно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и социализироваться в мирной жизни.

## Практик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стров технологий»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Сахалине

30 проектов по цифровизации госуправления внедр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4 году.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езентовал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форуме «Управление регионом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прошедш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порядка 2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нау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резентация самых успешных практик состоялась на сессии форум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регионов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а пример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дератором дискуссии выступ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живем в эпоху, когда технологии меняют мир вокруг нас быстрее, чем когда-либо. И наша задача –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и возможности во благо людей. Мы намеренно вовлекли все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работу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стремимся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и внедрить самые раз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жизн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мфортнее. У нас немало успешных кейсов, и мы готовы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с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оценке экспертов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ИИ-зрело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им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торое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цифровых проектов.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уже помогает сахалинским врачам назначать пациентам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линическими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утвержденными Минздравом РФ, оценивать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ие снимки органов грудной клетки и молочной железы, вести электронные карты пациентов. Цифровой помощник работает и на горячей линии 1-300.

– Важный проект –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на основе больших данных предрасположенности у пациентов к определенным заболеваниям.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был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ы медицинские карты больных, у которых уже возникла онкология, и выявлены ее предвестники. Опираясь на собра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ы изучили базу обычных пациентов и выявили 1,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с повышенным риском возникновения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Такой же анализ был проведен и по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м заболеваниям,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Цифровые решения постепенно внедряются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протестирована платформа генерации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работает нейросетевой комплекс по обследованию 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цифрового помощника обучают оперативно отвечать на запросы граждан. Используя сеть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установленную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И помогает усо-

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истему распознавания лиц и выявляет неаккуратных водителей. Все эти инструменты позволяют сделать Сахалин безопасным и комфортным местом для жизни.

– В работе находится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мы считаем важны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месте с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 центром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мы разрабатываем 10 детектов, которые «улучшат» компьютерное зрение дл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Мы хотим объединить их в единую систему, чтобы видео, которое снято с помощью БПЛА, обрабатывалось 10-12 нейросетями в интересах раз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 примеру, Минтранс передава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облемах дорожной сети, министерству ЖКХ – о состоянии крыш жилых домов, министерству экологии – о свалках, и так далее,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Снегирев.

В перспективной разработке находится ряд инициатив – применен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качества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учета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расшифровки результатов УЗИ, кадастрового учета земель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 Два года назад мы выбрал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илотным регионом, чтобы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массовое внедр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многое из задуманного получи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работает кампус «Школы 21». Помимо этого, для Сахалина мы сделали курс по повышению грамотности госслужащих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егодня уровень знаний у команды региона составляет 87%. Поскольку курс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бер будет внедрять его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Еще одна история, которая выходит из Сахалина – это помощник туриста. Вместе с областным Минтуризма мы обучаем модель генеративной нейросети, которая будет максимально экспертно сопровождать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Вс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в 2024 году было реализовано 30 проект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Управляющий директор – начальник Центра человекоцентричного AI Сбербанка Андрей Незнамов.

## Более 1200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прошл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 областно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Процедур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 областно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помогли участника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править здоровье и вернуть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органов.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бойцы вновь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передовую, для част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больше не позволяет нести службу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Независимо от дальнейших планов с каждым из пациентов, получивших ранение, занимается команда специалистов, делается все возможное для улучшения здоровья.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нков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после ранения в бою на Южно-Донец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ожесточенной схватке сахалинец получил минно-взрывную травму. Последние полгода его ногу лечили в различ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ах страны, третью неделю функцию конечности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област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 Процедуры здесь самые разные, не только на ногу. Комплексно воздействуют – ногу разрабатывают, дают разгрузку спины, в целом организм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На выходные уезжаю домой, к семье, в Поронайск. Гуляю с собакой по морю, стараюсь умеренно нагружать ногу,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андр.

Большинство травм и заболеваний, с которыми поступают бойцы, связаны с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ым аппаратом. Это осколочные ранения, спинальные травмы и осложнения после них – порезы, контрактуры, полинейропатии. С каждым пациентом работает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ая бригада, стараясь восстановить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поврежденного органа или системы.

– Бывают пациенты, у которых в результате чрезмерной нагрузки, поднятия тяжестей происходит разрушение ране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эндопротезов суставов, у кого-то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обострились, возникли дегенератив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позвоночника. Нагрузка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колоссальная, не всегда ухудшение состояния связано с ранением. К каждому бойцу нужен свой подход, тесно работаем с военным госпиталем, смотрим, что можем сделать в каждом конкретном случае,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Иветта Забелин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ВО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включился в комплексн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здоровья бойц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упрощен порядок прохожд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в учреждении значительно пополнен парк аппаратуры,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Развивать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и в дальнейшем. Специалисты уже занимаются подбором новых техник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здоров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청-인천 연수구청, 국내 귀환동포 지원 협력한다

## 변철환 차장, 7일 이재호 구청장 만나 논의... "청소년 교육 환경에 주안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구청장 이재호)이 국내 귀환동포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지난 7일 연수구청에서 이재호 구청장을 만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귀환동포지원 효과가 시너지를 내도록하자고 뜻을 모았다.

연수구 연수1동에 있는 함박마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CIS 지역에서 귀환한 고려인 6천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고려인 동포가 산다.

재외동포청은 이처럼 증가하는 국내 귀환 동포들의 빠른 국내적응과 상생을 돕고, 나아가 이들이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변철환 차장은 "연수구청이 함박마을에 상생교류소,

다가지 배움터 등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만큼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동포청은 국내동포들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 자원으로 자라날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연수구청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이재호 구청장은 "고려인의 증가속도가 전국에서 제일 빠른 곳이 함박마을인만큼 건강한 사회통합을 위해 구 차원에서는 다양한 복지시설 건립을 비롯해 내외국인 사회통합 서포터즈를 위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고려인 동포사회도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동포청이 역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모집

## 4월 7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 신청 가능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을 모집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장학생 혜택으로 생활지원금(연간 1320만원, 최초 입·귀국 항공료, 논문인쇄비, 보험료 등을 지급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진학 전 한국어 연수 과정도 지원한다. 역대 장학생 선후배들과의 교류와 대한민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들이 국내 소재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사업을 199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우수 동포인재 유치를 위해 이공계 분야 전공자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4월 7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 지원 신청을 한 후, 신청 서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발자는 6월 중 재외공관과 코리아넷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21개국에 걸쳐 100명을 선발한 2024년 재외동포초청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모습. [재외동포협력센터]



21개국에 걸쳐 100명을 선발한 2024년 재외동포초청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모습. [재외동포협력센터]

\*문의: 재외동포협력센터 장학사업 담당자 (scholarship@okocc.or.kr)

(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 '한글(K-Geul)의 세계화'는 한민족공동체 구축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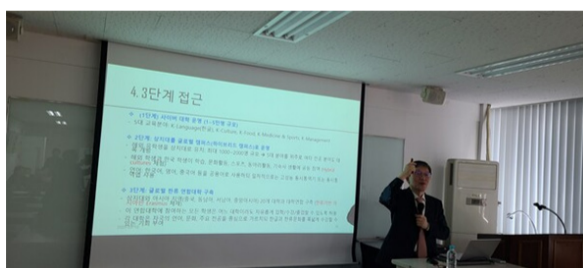
## 제7회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포럼' 열려성경룡 상지대 총장, 기조강연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포럼'(공동대표 박인기, 김봉섭)이 지난 3월 10일 7번째 포럼을 열고 국내외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교육과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을 이어갔다.

서울 장충동 종이문화재단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박인기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의 축사, 이상기 재외동포신문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성경룡 상지대 총장(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기조강연('세계한류·한상·한인대학 설립 구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송금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전 탄자니아 대사)가 '한글교육을 통한 고려인 정체성 함양', 전정선 일본샘물학교 교장(전 재일조선족여성회 초대회장)이 '재외동포 차세대교육-일본 동경 샘물학교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먼저 임채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 주류사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 처럼, 75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시 다같이 지혜를 모아 한글 중심의 지구촌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성경룡 총장은 "대한민국은 2019년 기준 인구가 5185만으로 정점을 지나 하강 추세에 있고, 조만간 경제력 및 소프트파워 또한 피크시점에



성경룡 상지대 총장이 지난 3월10일 열린 제7회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750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구축과 연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에서 세계한류·한상·한인대학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 포럼'은 재외동포 교육 및 역량 개발에 힘쓰는 전문가들의 '대화 마당'으로, '지구촌 한글학교 스토리' 공동저자인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현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장)와 김봉섭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현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그리고 19개국 26명의 필진이 주도하는 민간공공의교 플랫폼이다.

(재외동포신문)

# '서울 관광에 봄바람'을 1월 외국인 관광객, 코로나19 이전 102% 회복

## 올해 1월 서울 외국인 관광객 90만명, 역대 최다 '19년 동기간 방문객(88만명) 넘어서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 '관광 분야가 위축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기록, 코로나19 이전 대비(88만 명, '19년 1월) 102%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71만 명)과 비교해서는 약 27% 증가한 수치로, '1월'은 대표적인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던 '19년을 넘어선 점에 비춰 시는 올해 서울 관광 시장 전망도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1,390만 명)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23년 886만 명 → '24년 1,314만 명으로 꾸준히 회복하는 추세다.

## 오세훈 시장 '세이프서울' 메시지... 서울윈터페스타 등 예정대로 진행, 즐길거리 선사

시는 서울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비상계엄 이후인 작년 1 2.16.(월) 오세훈 시장이 주요 외신이 참석한 행사에서 영·중·일, 3개 언어로 "서울은 안전하고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와 연계한 '세이프서울(Safe Seoul)'홍보에 기울였던 노력이 유효했던 것으로 봤다.

오 시장은 그 밖에도 관광업계 긴급 간담회, 주한외교사절 신년 간담회 등에서도 '서울은 회복력 강한 도시'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는 역동적인 서울을 계속해서 주목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또 올해 1월, 서울이 트립어드바이저 '나 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고 뉴욕 지하철 서비스웨이 푸싱(Subway Pusing) 우려 없이 안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지하철 시스템'까지 주목받으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서울윈터페스타 등 준비했던 축제를 취소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 속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충분히 제공했던 점도 외국인 관광객 발길을 끌었던 것으로 봤다.

12.13.(금) 개막한 서울윈터페스타는 광화문광장마켓(~'25.1. 5.), 서울빛초롱축제(~'25.1.31.) 등 도심 속 볼거리를 선사하며 축제기간 중 내·외국인 방문객 539만 명의 발길을 모았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오랫동안

안 머무르며 서울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말 '특별한 대주간'을 운영하고 여의도·광화문에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등 편안한 서울 여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별한대주간'에는 명동(전통놀이 체험), 김포공항(서울관광 환대 부스) 등 주요 접점에서 관광객을 지원하고 서울시장 환영 메시지가 담긴 영·중·일 버전 기념 엽서를 배부(1만 장)하는 등 잊지 못할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 내년 '3·3·7·7 관광도시' 목표...

## '안전하고 즐길거리 넘치는 관광도시' 이미지 전달 주력

서울시는 오는 '26년까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1인당 지출액 3 백만 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을 70%의 '3·3·7·7 관광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트립어드바이저가 서울을 '과거와 현재의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소개했듯 혼자 찾아도 안전하고 즐길거리가 넘치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언제나 축제가 열리는 도시'라는 콘셉트에 걸맞은 사계절 축제도 준비 중이다.

올봄에는 ▲서울스프링페스타(4.30.~5.6.), 여름에는 한강 전역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5.30.~6.1.), 가을에는 도심 속 힐링을 선사할 ▲바비큐 페스티벌(10.25.~10.26.) 등이 열릴 예정이다.

올해 1월 '서울 관광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전망이 밝은 가운데 시는 상반기 중으로 관광 활성화 분위기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독일·중국 등 해외 현지에서 서울을 세일즈하는 '관광로드쇼'도 집중 개최 및 참가할 예정이다.

최근 관광 트렌드 중 하나인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를 테마로 다양한 주제의 서울살이 슷폼 시리즈를 제작해 소개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 관광이 자칫 다시금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는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개성 있는 관광 콘텐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3·3·7·7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광정책과)

# 이 모 저 모

## (2면의 계속)

사할린 여성의 평균 연령은 42.9세로 평균통계적으로 남성보다 4세가 많다. 여성의 17%는 15세 이하의 소녀이고, 54%의 여성은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들이며, 여성의 29%는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 연령보다 높다. 2024년 초에 사할린주에는 95세 이상의 장수한 여성이 273명이었으며, 그중 24명이 100세 생일을 맞았다.

대부분 사할린의 여성에게 가정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다. 2023년에 사할린 지역에 3,800 이상의 가정이 탄생했고, 그중 55.7%의 신부는 첫 결혼이었다.

대부분의 여성은 20세 - 34세 연령대에서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다. 혼인으로 탄생한 사할린의 모든 신생아의 72.2%가 바로 이 연령대의 그룹에서 태어났다.

2023년에 가장 어린 신부는 16세-17세로 22명이나 되었다. 고령의 여성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60세 이상의 여성 95명이 혼인을 했으며, 그들 중 11명은 첫 혼인이었다. 2023년 사할린 지역에 4,600명의 신생아가 탄생했고, 그중 2,200명이 여아이다. 또한 신생아의 64.2%는 둘째와 셋째 아이이다.

가정적인 걱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할린 여성들은 성공적으로 학구적 경력을 구축하여 2023년에는 167명의 여성들이 학술적 연구원과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었고, 그중 34명의 여성은 준박사였다. 이들 대부분 (77% 이상)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사회 및 기술, 농산업, 인문학, 역사, 언어학 분야의 대표자들로 활동하고 있다.

### Сахалинстат представил портрет современной сахалинки

Сахалинстат представил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современной жительниц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в регионе проживало 241,2 тысячи женщин — это 53%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

ления.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ок (83%) живут в городах, и лишь 17% —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Интересно, что на тысячу мужчин в области приходится 1115 женщин (в городах — 1122, в селах — 1081). При этом, если в возрасте 35-39 лет женщин немного меньше, чем мужчин (983 на тысячу), то среди тех, кому за 70, женщин почти вдвое больше (1973 на тысячу мужчин).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сахалинской женщины — 42,9 года, она на 4 года старше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мужчины. 17% женщин — это девочки до 15 лет, 54% находятся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а 29% — старш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начало 2024 года насчитывалось 273 долгожительницы, чей возраст составляет 95 лет и более, 24 из них отметили вековой юбилей.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сахалинок семья остается важной ценностью. В 2023 году в области появилось более 3,8 тысячи новых семей, причем для 55,7% невест это был первый брак.

Чаще всего женщины выходят замуж и рожают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20-34 лет. Именно в эт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родилось 72,2% всех детей, появившихся на свет в браке. Самыми юными невестами в 2023 году стали 22 девушки 16-17 лет. Но и в старшем возрасте женщины не боятся перемен: 95 сахалинок старше 60 лет вышли замуж, причем 11 из них — впервые. В 2023 году в регионе родилось 4,6 тысячи детей, из них 2,2 тысячи — девочки. Причем 64,2% новорожденных — это вторые и последующие дети.

Несмотря на семейные заботы, многие сахалинки успешно строят научную карьеру. В 2023 году научны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и разработками занимались 167 женщин, 34 из них — кандидаты наук. Большинство (более 77%) работают в сфере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е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ках, а также в истории и филологии.

### 국가서비스사이트, 사할린의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가동

고스우슬루기( 국가서비스사이트) 포털의 새로운 플랫폼은 가장 다양한 문제들과 질문에 대한 해결에 떨 수 없는 도우미가 되었다. 새로운 플랫폼은 특별히 중소기업 대표들의 요

청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단시일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받게 되어 그들의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토마리의 경제' 텔레그램을 통해 상세히 전해졌다.

사할린의 기업인들이 고충을 겪는 주요 난관들은 공공설비망의 설치와 필요한 수리를 비롯해 적합한 부지 탐색과 관련이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기업인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나의 사업'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발전을 위한 전략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고, 상담을 비롯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류작업을 돕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 На Госуслугах запустили сервис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а

Новая платформа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стала незаменимым помощником в решении самых разных вопросов и проблем. Этот сервис разработан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оперативно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обращ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 его помощью инвесторы и бизнесмены могут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олучать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ша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Экономика Томари».

Основные труд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вязаны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ремонта и прокладки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а также с поиском подходящих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Кроме того,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нуждается в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в регионе оказывают комплекс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предлагает помощь в разработке стратегий развит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убсидий. Кроме того, центр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нсульт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могает с оформлением документов и оказывает другие услуг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